



Rev. Nam-Hong Cho  
**KARMS**  
 19921 Appledowre Cir. #109,  
 Germantown, MD 20876

Korean Association of  
 Retired Ministries &  
 Spouses & Survivors  
 Presbyterian  
 Church(USA)

## 잔인한 4 월을 보내며 인사를 드립니다

KARMS 회장: 조남홍 목사

### 2019 -2020 임역원

**회장: 조남홍 목사, Nam-Hong Cho**  
 19921 Appledowre Cir. #109,  
 Germantown, MD 20876  
[nambcho@hotmail.com](mailto:nambcho@hotmail.com)  
 ☎ (240)447-1664

**부회장: 김경재 목사, Kyung-Jae Kim**  
 137 Silverwood Pl,  
 Marina, CA 93933  
[kimkyungjae@yaboo.com](mailto:kimkyungjae@yaboo.com)  
 ☎ (559)\_936-0381

**총무: 김국진 목사, Gukgene Kim**  
 928 E. Jamison Lane  
 Centennial, CO 80112  
[gukgene@yaboo.com](mailto:gukgene@yaboo.com)  
 ☎ (310)926-7736

**서기: 서정길 목사, Jung-Kil Sub**  
 35007 Sedona St.  
 Lake Elsinore, CA 92530  
[jungkilsub@gmail.com](mailto:jungkilsub@gmail.com)  
 ☎ (213)949-9050

**회계: 노남길 목사, NamGil Rob**  
 420 Stevens St.  
 Williamsport, PA 17701  
[namgrob@hotmail.com](mailto:namgrob@hotmail.com)  
 ☎ (570)368-3331

**선교부장: 송석민 목사,**  
 Seokmin J.Song  
 1432 W. Emerald Ave. #665  
 Mesa, AZ 85202  
[seokmsong@gmail.com](mailto:seokmsong@gmail.com)  
 ☎ (602)710-0268

**복지부장: 박신화 목사,**  
 Shin-Hwa Park  
 1715 N. Whitley Ave. Apt. #607  
 Los Angeles, CA 90028  
[shinhwa.park1@gmail.com](mailto:shinhwa.park1@gmail.com)  
 ☎ (213)842-2447

**친교부장: 이정렬 목사,**  
 Ann Rhee Menzie  
 13226 La Jolla Circle #C  
 La Mirada, CA 90638  
[annrmenzie@yaboo.com](mailto:annrmenzie@yaboo.com)  
 ☎ (510)\_381-3324

**감사: 안창의 목사,**  
 Chang-Eui An  
 64-57 231 St. #2  
 Bayside, NY 11364  
[nypastorabn@gmail.com](mailto:nypastorabn@gmail.com)  
 ☎ (718)702-7007

**감사: 홍준만 목사,**  
 Choon-Man Hong  
 2826 Gramercy Drive #204  
 Los Angeles, CA 90005  
[choonmanhong@yaboo.com](mailto:choonmanhong@yaboo.com)  
 ☎ (213)550-6755

“사월은 잔인한 달” 이 지나갔습니다. 티에스 엘리엇이 수천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탐욕과 잔인함에서 비롯된 1 차 세계 대전(1913-1918)의 허무와 상실을 보면서 그의 시 “황무지”의 첫구절에서 “사월은 잔인한달”이라고 서두를 꺼냅니다. 사실 세계 역사상 4 월은 남북전쟁 발발로 시작해서 타이타닉호 침몰, 및 아르메니아 대학살등 한국에서는 제주 4.3 사태, 세월호 침몰등, 4 월은 역사에 얼룩진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수 많은 생명의 상실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년초에만 해도 미국은 아직 안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놓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세계 제일의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온 국가가 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이미 죽은 사람의 숫자가 월남전에서 전사한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 현실에 대하여 무어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머물르고 모임을 자제하라는 명령 때문에 이제 침대에서 책상으로 출근하는 겪이 되었다고들 말합니다. 우린 지금 “더불어 지내는 관계”에서 “떨어져 지내야 하는 관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교제하고 더불어 예배드리던 상황에서 이제는 화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위로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할 것인지 미래는 불투명하기 짝이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교회가 내 놓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 아니 그 보다 먼저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의 목회는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는 고민하여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태를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종말론에 연결하여 열을 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이라고 탓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전염병이 만연할 때 어떻게 했는 가를 찾아봅니다. 초대교회에는 두번의 큰 전염병 만연으로 인하여 로마 거리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거리에 쌓여 있었던 때도 있었다고 하네요. 첫번째는 15 년이나 계속 된 주후 165 년-180 년이고, 두번째는 13 년간의 주후 249 년-262 년 입니다. 전염병의 창궐로 로마 전체 인구의 1/3 이 죽고 하루에 2 천명이 혹은 5 천명이 죽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마커스 알릴레우스는 재위중에 사망까지 하였습니다(주후 180 년 3 월 17 일). 그는 역병이 다신교를 믿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신이 노한 까닭이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심한 박해를 가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내어쫓기고 예배금지 고문등으로 박해를 피해 카타콤에서 살면서도 전염병에 감염된 이들을 최선을 다해 정성껏 돕고, 음식을 제공하여 환자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율리아누스가 사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독교인들을 달리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길거리에 여기저기 쓰레기처럼 쌓여 있는 시체들을 누구도 수습하지 않았지만 해가지고 어두우면 검은 옷을 입고 복면을 한 무리들이 나타나 정성을 다해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고 새벽 동트기 전에 사라지기를 반복하여 로마 거리는 깨끗하게 되어 로마 고관들이나 로마인들이 너무 궁굼하여 알아보니 박해를 심하게 받아 공동묘지, 동굴 카타콤에 숨어 살던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알려게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적을 수 없지만 이런 역사에 대한 글은 개인적으로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언제나 피하고 도망가고 책임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에 참여하여 함께 고통을 나누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망자로서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함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교인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 때에 같이 기도하며 고민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동역자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음식 보따리와 마스크와 과일등 푸드 팬트리를 만들어 노인들의 아파트를 찾아 뛰어 다니는, 위험 속에서도 돌봄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목회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치유와 방어를 위해 애쓰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이때처럼 고맙게 느껴질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 합니다.

티에스 엘리엇 시의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겨울의 죽은 땅에서 라이락을 키워내는...것처럼, 오늘도 생명을 키워내고 깨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찾아가고 헌신하는 목회자들에게 위하여 기도하며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한 13:34-35)



# KARMSS NEWS



미국장로교 한인은퇴목사 및 배우자회 회보 2020년5월-축소판

KOREAN ASSOCIATION OF RETIRED MINISTERS & SPOUSES & SURVIVORS PRESBYTERIAN CHURCH (U.S.A) -KARMSS-

발행 : 조남홍

발행일 : 2020년 5월 1일

편집 : 김국진

## 2021 NCKPC 제49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 안내

날짜 : 2021년 5월 18 -21

곳 : Wyndham Houston West, Houston, Texas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호에....

### 소천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2020/1/8 김득렬 목사(93세)  
 2020/2/5 이 열 목사(75세)  
 2020/3/13 변승기 목사(81세)  
 2020/4/26 홍효근 목사(93세)

2020/3/30 윤경실 사모(윤명호 목사 부인, 89세)  
 2020/4/4 윤의조 사모(박상근 목사 부인, 92세)  
 2020/4/22 학명숙 사모(고 하종관 목사 부인, 96세)

홍춘만 목사: 심혈관 수술 받고 회복중  
 김진훈 목사: 목사님이 설립하신 컬럼버스 한인장로교회  
 45주년 창립예배에 설교자로 초청받다.  
 이원걸 목사: 월빙턴한인장로교회(NC) 인터림 사역 중  
 신동환 목사: 9월로 연기된 보스톤 마라톤을 위해 훈련 중

### 회원 동정

오광섭 목사 사모: 담석 수술 후 가료 중  
 임낙길 목사: 왼쪽 무릎 통증치료 중  
 박정도 목사: Zoom을 통해 Online 신학강의 계속  
 김인식 목사, 최지웅 목사 & 공순화 사모: 항암치료중 기도부탁  
 김중엽 목사: 지난8월호와12월호에 알려드린 바, 위암수술후 가료 중

### 후원교회

1)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문정선)	\$300
2) 주예수 장로교회 (배현찬)	\$300
3) 클리블랜드 한인중앙장로교회(김성택)	\$300
4) 한양 장로교회 (강일준)	\$100
5) 베다니장로교회 (최병호)	\$300
6) 차타누가한인장로교회(문은배)	\$100
7) 포월튼비치 한인제일장로교회(정광현)	\$100
8) 사우스베이장로교회(김성택)	\$100
9) 하인스빌 열린 장로교회 (박종식)	\$100
10) 세기너 장로교회 (박시몬)	\$100
11) 메디슨 한인장로교회 (임은옥)	\$100
12) 썬라파엘한인장로교회(최은석)	\$100
13) 뉴욕 소망장로교회 (장정혜)	\$100
14) 샌디에고연합장로교회(강용훈)	\$100
15) 시라큐스 한인교회 (박시몬)	\$100
16) 포도원 장로교 (김병일)	\$100
17) 헤거스타운 한인교회 (윤치현)	\$500
18) 발도스타제일한인장로교회(조진영)	\$100
19) 머릿돌 교회 (이상철)	\$100
20)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박일영)	\$100
21) 고백하는 교회 (하모세)	\$100
22) 한빛 장로교회 (김상현)	\$200
23) 트라이벨리한인장로교회(이명섭)	\$100
24) 다민족평화 교회(류인근)	\$100
25) 휴스턴한인중앙장로교회(이재호)	\$300
26) 메릴랜드제일장로교회(조은상)	\$300
27) 와싱턴평강 장로교회 (서보창)	\$50
28) 솔즈메리한인장로교회(전진은)	\$300
29) 아틀란타중앙교회 (한병철)	\$300
30) 워싱턴에덴장로교회(김용배)	\$100
31) 팜스프링 한인장로교회(양 인)	\$100
32) 우드랜드빛사랑교회(조의석)	\$100
33) 브랜든샘물교회 (김건배)	\$100
34) 뉴저지참관교회 (박순진)	\$1,000
35) 베다니장로교회 (최병호)	\$300
36) 브레머튼한인장로교회(박근범)	\$300
합계 :	\$6,950

### 회계보고(수입) (2019년 5월1일-2020년 4월30일)

개인 후원금	
1) 윤여철 목사.	\$130
2) 김유봉 장로	\$500
3) 김 일 장로	\$200
4) 배숙희 목사	\$1,000
5) 김중범 장로	\$1,000
합계 :	\$2,830

### 회원 회비

1) 송영자사모NY.	\$40
2) 김경재(은숙)CA.	\$70
3) 장계원CA.	\$70
4) 윤여철VA.	\$70
5) 윤영근(경숙)NY.	\$70
6) 노남길(씨니)PA.	\$70
7) 김중엽(옥교)HI.	\$70
8) 강계찬(옥진)GA.	\$70
9) 임형태(병현)CO.	\$40
10) 김광선(현옥)CA.	\$70
11) 김광수(천사)CA.	\$70
12) 권영교(혜경)CA.	\$70
13) 김인식(화자)CA.	\$70
14) 김판영CA.	\$70
15) 안동성CA.	\$40
16) 최지웅(영숙)CA.	\$70
17) 최명배(귀숙)NY.	\$70
18) 정관봉(김화자)CA.	\$70
19) 박관준(능복)VA.	\$70
20) 홍수잔 CA.	\$50
21) 김은재 NY	\$50
22) 조남홍(연순)MD	\$70
23) 송진재PA.	\$70
24) 김진숙 WA	\$40
25) 노계상(향실)IL.	\$70
26) 이충남(연숙)NJ.	\$70
27) 이용창(명애)GA.	\$70
28) 신현정(희숙)IL.	\$70

29) 윤명호(경실)NJ.	\$70
30) 이일봉(영자)CA.	\$70
31) 권오덕(신영순)WA.	\$70
32) 림인환(은옥)NY.	\$70
33) 송석민(계순)AZ.	\$70
34) 김선배(춘자)KY.	\$70
35) 신동환(영화)VA.	\$70
36) 배숙희(국진)NJ.	\$70
37) 여명자 IN.	\$40
38) 전영현(사라)PA.	\$70
39) 홍춘만 CA.	\$40
40) 이유신(정희)CA.	\$70
41) 서경길(은희)CA.	\$70
42) 박신화 CA.	\$40
43) 박윤순 CA.	\$40
44) 신영애 MI.	\$40
45) 이원걸(은자)GA.	\$70
합 계 :	\$2,840

### NCKPC 사역 깨닫 기금

1) 윤여철 목사(VA).	\$100
2) 윤영근 목사(윤정숙)KY.	\$30
3) 안창의 목사(안연주)NY.	\$1,000
4) 김선배 목사(김춘자)KY.	\$100
5) 이유신 목사(이정희)CA.	\$300
합계 :	\$1,530

### 선교회원금(미자립교회지원)

1) 홍춘만 목사CA.	\$30
2) 노남길 목사(씨니)PA.	\$100
3) 이유신 목사(이정희)CA.	\$200
4) 신영애 사모 MI.	\$60
5) 전영현 목사	\$30
합계 :	\$420

현재 총수입 합계: \$ 14,570

### 편집 후기

4월, 부활주일 즈음에 발간하려던 회보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총회가 미뤄지다가 마침내 내년, 2021년 5월에 모이게 됨에 따라 Full Page 회보는 경비와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내년, 2021년도 부활주일에 발간하기로 하고 이번과 성탄절에는 꼭 필요한 소식만 전하는 축소판으로 발간하기로 했으니 해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반석이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이 환란의 날들을 무사히 피난하시기를 빕니다.